

동남원 IC-남원 진입로 추진

(광주~대구 고속도로)

28억 5,000만원 투자
4월 착수 연말 준공 목표
시내 진입 20분 단축 기대

광주~대구 고속도로(옛 88고속도로) 동남원IC에서 남원 방면 진출입로 개설공사가 추진되어 남원 시내 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동남원 IC 연결도로는 산동면 부절리 일원에 총 2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연말 준공을 목표로 개설된다.

동남원 IC로의 진출입은 현재 장수방면에서만 가능하다. 남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수방면으로 약 10km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당초 동남원 나들목 연결 계획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마을과 인접한 도로에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교통사고 등 주민 교통안전에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남원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



동남원IC

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문제점을 건의한 결과 국비 24억원과 시비 4억 5,000만원 등 총 28억 5,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동남원 나들목 진출입로가 연결되면 동남원IC를 이용하여 장수방면으로 우회할 필요가 없이 거리상 10km 시

간상 20여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남원지역은 동서(광주대구 고속도로)간, 남북(순천완주 고속도로)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며, 총 4개의 IC(남원, 동남원, 북남원, 서남원)가 운영돼 명실상부 사통오달의 교통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향교 춘계 석전대제 봉행

5성·4현·동방 18현 등 27위 공덕 기러

임실향교(전교 윤봉택)는 16일 공자를 모신 사당 대성전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관내 기관장 및 향교유림,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 석전대제를 거행했다.

공자탄생 2677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석전대제는 심민 군수가 초헌관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후신 경찰서장, 한완수 도의원이 각각 아헌관, 종헌관으로 참여했다.

임실향교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하여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등 5성(五聖)과 송나라 성리학의 대가 주돈이, 정호, 정이, 주희 등 4현(四賢), 그리고 설총과 최치원

을 비롯한 동방 18현(賢) 등 27위에 대하여 공덕을 기리는 행사다. 5상에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를 시작으로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명예로 이

어져 1시간 가량 진행했다. 제례에 참여한 심민 군수는 "전통유교 문화행사를 통해 잊혀져가는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보존 및 전승하고 예와 덕을 중시하는 건전한 지역 문화 정착에 유림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임실향교는 1413년 태종 13년에 건립된 것으로 임진왜란 때 일부 소실되었다가 수차례 중수와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성전은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26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임실향교에서는 그간 일요학교는 물론 예절학교를 통해 전통예절과 기초한문 등을 교육해 왔으며 금년도는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문의 ☎063-640-2315)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 복합테러 합동훈련

순창경찰서는 최근 복합테러 훈련의 일환으로 경찰, 軍,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다.

통합방위 작전 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은 순창읍사무소에 원인 미상의 폭발 및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유관기관의 초동대처 훈련을 통한 긴급구조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주변 경계, 군과 경찰의 합동 정보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최규은 서장은 "최근 북한의 도발 및 테러위협으로 남북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분위기 속에 경찰, 軍,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통합방위 작전 태세 확립을 더욱 공고히 하여 순창 지역 내 어떠한 도발도 허용하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임실군, 집단급식소 위생 지도·점검

임실군은 식품 안전성 확보와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위생점검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위생점검은 최근 기온상승으로 식중독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41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소독·저장시설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조리장 청결, 종사자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위생적인 조리실태 등을 지도·점검하는 한편 업소관계자와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집단급식소 내 조리기구의 식중독 세균검사를 위해 칼, 도마 등을 수거하며, 위반사항 발견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급식위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관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3가구 대상 이도주공아파트 임대보증금 범위 내 1,600만원까지 용자

임실군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가구를 대상으로 총 2,900만원 지원에 이어 올해는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3가구를 지원

할 방침이다. 군은 L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임실이도주공아파트)에 입주자가 확정되거나 기존임주자를 대상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1,600만원까지 무이자로 용자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LH공사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증금

중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1,600만원 한도)을 전북도와 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납부하며, 1회에 2년을 기준으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민원봉사과 ☎ 640-2298로 문의하거나, 임실군 홈페이지(http://www.imsi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홍보

고창군, 금융기관·관내 법인에 안내문 제작 발송 계획

고창군에서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대비해 맞춤형 안내문을 제작해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 홍보에 나섰다.

올해는 2015년 1월부터 원천징수한 법인의 금융(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지(금융기관)는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말까지 분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특

별 징수된 금융 소득분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시 납세자가 특별징수 납세자마다 각각 환급 신청했던 점을 보완해 올해부터는 법인 분점 소재지 시군구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해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군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과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과 관내 법인에 안내문을 제작, 발송할 계획이다.

고창군 법인지방소득세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말까지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야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과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서면 제출 가능하며, 특별징수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른 파일형식 등 자세한 설명 자료는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 재무과 세정팀 ☎650-2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보건소 준수 당부

남원시보건소는 야외 활동이 잦아지고 일교차가 심한 요즘 날씨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중독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예방 3대요령'을 잘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 낮은 온도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하는 데다 단 10개 입자만으로도 쉽게 감염을 일으키는 등 생존력과 전염성이 강해 환자의 분변 침, 오염된 손, 문 손잡이 등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으

므로 개인위생과 식품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생활하수 오염이 주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굴 등 어패류를 먹을 때는 날로 먹는 식습관을 버리고 어패류의 중심부까지 85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여 완전히 익혀 먹으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외출 후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고창군, 어린이놀이시설 민관합동 안전대진단

고창군이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안전대진단은 민관합동점검단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지역 내 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군은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놀이시설 관리주체를 통해 ▲안전 유무 ▲보험 가입 ▲정밀검사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의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또 지난 14일 어린이놀이시설 3곳을 대상으로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국민안전현장 관찰단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해 노력했다.

고창군청 재난안전과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 군 관계자는 "진단기간 동안 취약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관리주체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보수할 것"이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